

## No Other Name!

(시편 Psalms 118:1-6; 19-29)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셨습니까?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일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지나가시는 길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겹옷과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펼쳐 놓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토록 목청 터지도록 열광했던 무리들, 바로 다음 주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정말 제 정신 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얼마나 허무한 것 입니까?

Did you have a peaceful week in the Lord’s grace? Next Sunday is a Palm Sunday, when Jesus went to Jerusalem to bear His cross. Countless people filled the path Jesus was passing. They spread out their clothes and palm branches on the street, and praised out lou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The crowd who shouted at the top of their lung crucified the Lord the very next week. Were they in their right mind? How could that have happened in a few days? How vain was their cry of ‘Hosanna the highest, Praise the Lord!’?

저는 매년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 설 때마다 목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맞이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혀 졌을까?’

‘어떻게 ‘호산나!’ 가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박아라!’ 로 바뀌게 됐을까?’

사실 이 질문은 2 천년 전 군중에게만 해당되는 물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질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I usually ask pastoral questions between the Palm Sunday and Good Friday every year. What changed the minds of people who welcomed the Lord so passionately?’ ‘How could ‘Hosanna!’ be changed to ‘Crucify Him!’ over night?’ In fact, these questions are not only aimed at the crowd of two thousand years ago. You and I, we all are not free from the questions.

너무나도 쉽게 은혜 받고, 방금 받은 은혜 금새 다 쏟아버립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한 술 더 떠서, 주님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하고, 주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습니다. 잠시동안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금새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해 집니다. 가끔씩 주님께 빠치기도 합니다. 아주 수틀리면 ‘주님 나 떠나요’ 헐박까지 하지요.

We are so easily touched by grace, and we lose it so fast. That’s not all.

Even more, we reproach the Lord asking where He is, and we nail a spike in the Lord’s heart. We serve the Lord so passionately for a short time, and cool down fast like the Siberian wilderness. We sometimes get sulky at the Lord. If we are really mad, we threaten Him saying, ‘Lord, I am leaving’.

일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어떤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땅 팔아 바친 교인, 전세금 뽑아 바친 교인, 심지어 피를 뽑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보았다. 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자기 성질 뽑아 버리지 못하면, 순간순간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됩니다.

One retired pastor who served the Lord for all his life once said,

“I’ve seen a church member who dedicated his house to church, one who sold his land, one who gave up his rent deposit for church, and someone who even sold his blood for offering. But I have never seen a single person who gave up his temper for church.” If one can’t control his or her temper, ‘Hosanna!’ instantly becomes ‘Crucify Him!’

여전히 옛 성질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 팔아 먹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좀 보세요. 돈궤를 맡았어요. 제자들 중에 제일 경제에 눈이 밝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해방된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을 꿈꿨던 유다는 실패자 예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유다에게 예수는 효용가치를 상실한 구시대의 화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옛 스승 예수의 목숨 값은 은전 몇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앞길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지요.

If we don’t get rid of our worldly temper, we could sell Jesus any time. Look at Judas. He was in charge of the cashbox. He was the smartest about money among all the disciples. One day, the Lord said something that made his sky fall. ‘I have to bear the cross and die.’ Judas was dreaming about becoming the Secretary of Treasury for the liberated Israel, and he could not forgive Jesus. To Judas, Jesus has become obsolete currency of an old era that lost its, or a piece of garbage. The value of his teacher’s life is worth only a few leaves of silver coin. If he is not going to be useful for my future, he has no value to me.

저는 속회에 참석 할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불쑥 던지는 질문에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나를 도와 주시는 분으로만 이용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건져 올린 이런 싱싱한 질문은 사실 어떤 신학자의 질문보다도 더 신학적입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뭇 땀에 단잠 설쳐가며 사순절 새벽기도 나가고, 아까운 물질 써가며 섬기나?’ ‘주님,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살짝,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주님과와의 사귀미 어느새 ‘Give & Take’ 의 관계가 됐습니다.

Whenever I attend small group meetings, some people startle me with abrupt questions as such: ‘Don’t we, whether we intend it or not, use the Lord for someone who help us?’ Such real and live questions are more theological than any questions from theologians. ‘I get so angry when I feel the Lord doesn’t help my family.’ ‘For why do we lose our sleep for going dawn prayer service during Lent, and use our money to serve?’ ‘Lord, if I do something for you, shouldn’t You do something for me in return?’ Even if we hide it well,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has become a relationship of ‘Give and Take’.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을 받길 원하는 교우가 계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애썼지만, 앞길이 계획한대로 시원하게 열리지 않았습디다.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께 따져야 되지 않나요?’

저도 하늘나라 가면 꼭 주님께 물어볼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안간힘 다 썼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 때 숨쉬 거름도 없이 연거푸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주님 대답이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There was a church member who prayed fervently, and wanted to passionately serve God. He worked hard for past few years, but his future was not very rosy as he planned. ‘Pastor, what is this? Do I still need to thank God in this circumstance? Shouldn’t I confront Him?’

I want to ask the Lord when I myself see Him in heaven.

‘Lord, our church members tried hard to live according to Your will, why do they still have to suffer?’ ‘Why did You give them such hardship one after another?’ I really want to know His answer. But, until I meet him, I want to find answers in the Word with you.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18: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alms 118:1)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세요. 감사의 이유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잘 나갈 때는 적어도 불평불만을 잠깐 중단하지요. 하지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펑펑해서 목에 가시처럼 자꾸만 걸릴 때, ‘과연 주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되묻게 되지요. 그동안 공들인 게 아깝고,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기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애당초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구하면, 막판 뒤집기 역전승으로 마무리해 주실까?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늘 똑같은 마음입니다.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please read carefully confession of the Psalms’ author. The reason of thanksgiving is not from the blessings we are thinking. We stop complaining when we are healthy, financially sound, and successful. But, when things do not go right according to our plan, or when life is too tough to face it, we usually ask, ‘What is God to me?’ We feel as though we wasted time and energy, and we feel regretful. If Almighty God paid a little more attention to me, things wouldn’t have been this way. If I start praying hard now, would He change things as we wish?’ When I think about ou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of our church, I feel the same pain you feel.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자체, 그 분의 캐릭터, 주님의 성품에서 감사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번 고백해 보십시오.

But today’s scripture doesn’t seek conditions for thanksgiving from what we have. It only speaks to the conditions for thanksgiving in terms of Jesus Himself, or His character. Let’s confess together in a loud voice: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난 왜 바뀌지 않을까? 마음은, 생각은 주님만 따르고 싶은데, 난 왜 자꾸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박을까? 아직도 내 성질 다 못 버려서 그래요. 성질 죽이는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속으로 ‘목사만 아니라면’ 가끔 울컥 할 때도 있습니다. 굿 뉴스와 베드 뉴스가 있습니다.

As I started preaching the sermon, I shared with you a fundamental agony of Christians. Why am I not changing at all? I try hard to follow Jesus in my mind, but why I keep nailing Him on the

cross? It is because you don't throw away yourself yet. I know it is so hard to do so. Even for me, there are times I can't control my temper. I have good and bad news for you.

나쁜 소식부터 먼저 말씀 드리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내 성질 못 바꿉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성질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Let me tell you bad news first. We can never change our temper with our own strength and efforts. No matter how patient we are or how hard we cry, it never changes like Hymn lyrics.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 하실 이 예수 밖에 없네 (새 찬송가 544 장 후렴)  
Faith in Christ will save me!  
Let me trust Thy weeping Son,  
Trust the work that He has done;  
To His arms, Lord help me run:  
Faith in Christ will save me.  
Jesus wept and died for me;  
Jesus suffered on the tree:  
Jesus waits to make me free;  
He alone can save me! (Weeping Will No Save Me!)

자, 굿 뉴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만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표정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챱니다.

Now here is good news. We will have real hope when we yearn for Jesus on the cross with our pure faith. Infants instinctively imitate facial expression of mother and father after birth. They find out how their parents feel by looking at facial expression.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입니다. 우리도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몸과 머리만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젖꼭지를 내 입에 물려주겠지, 먹기 좋게 잘 갈아서 떠 넣어 주겠지.' 이런 어린이가 마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You and I are 'spiritual beings.' We ought to always feel our Father God and His feeling with our hearts. We ought to keep growing spiritually as well as physically. 'Someone will feed me with breast milk. Or someone will feed me with a spoon.' We ought to outgrow from the state of such infant-like mind and hope for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자녀가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전에 부모님 마음 잘 몰라서, 속상하게 해드린 것, 자기 자식 키우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영적 성장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공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만을 바라보십시오!

When children become independent, establish a family and have a child, they would better understand minds of their parents. They come to realize how their parents would feel about them as they raise their child. As you grow spiritually, you, as parents not as an infant, come to feel the same way as your parents do. Let me tell you the best way for spiritual growth. Let's fix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시편 118 편은 1-4 절까지 네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Verses 1-4 in Psalms 118 repeatedly witness who Jesus Christ is. Who is our Lord? First, He is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11)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v.9)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V.10)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John 10:11).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a] They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John 10:9).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John 10:10).

오늘 본문도 정확히 주님의 선하심을 '구원의 문' 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고 나서 의의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을 지나, 십자가 공로에 힘 입어서, 의롭게 해 주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Today's scriptures describe goodness of Jesus Christ as the 'gate of salvation.' We are not striding into the gate of righteousness after becoming a righteous person. We can only become as such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with the help of the cross and by relying on Jesus Christ who makes us righteous.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시편 118:19-20)

Open for me the gates of the righteous; I will enter and give thanks to the Lord.

This is the gate of the Lord through which the righteous may enter (Psalms 118:19-20).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잘 낫건 못 낫건,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저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구원의 대문으로 늘 우리 앞에서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 좋을 때만 주님께 감사합니까?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He doesn't mind if we are smart or not, or we are rich or not. He as the good shepherd is just standing before us as the gate of sheep, or the gate of salvation. Even when the Lord accepts us without conditions whatever circumstances we are in, why do we only thank Him when we are happy? True thanksgiving is to always worship the goodness of the Lord.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다’는 동사에는 ‘충성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정말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How is our Lord? Second, He is the One who loves. ‘Love’ includes ‘submit.’ Jesus Christ was completely submitted to God, His Father, till the end, or to His death.

순종은, 희생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본보기입니다. 자 보세요. 마땅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말구유로 내려 오셨어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버려진 돌’ 취급까지 당하셨습니다.

Obedience or sacrifice means leaving all of myself to God completely. His loving is an example of complete obedience to God. Think about this. The One who deserves to enjoy the glory of heavenly throne came to the lowest manger. He chose death over life. Even He was treated as a rejected stone.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22)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Psalms 118:22)

주님은 비록 쓸모없이 버려진 돌 취급 당하실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잃어 버리지 않았습시다.

Even when He was treated as such, He only relied on God. He didn’t lose His unchanging faith toward God’s faithful love.

한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 드립니다. 순종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더 커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와싱턴인교회의, 또 새롭게 재건축되는 웨슬리 홀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Let me tell you one amazing secret. Obedience doesn’t come reluctantly nor can be forced. The greater our faith in God grows, the greater our desire to obey Him becomes. Our God is our Lord God, who is sincere without fail. The resurrected Jesus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all the churches in the world. He is the cornerstone of the Wesley Hall, which is under reconstruction, as well as our KUMC.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11-12)

This Jesus is the stone that was rejected by you, the builders, which has become the cornerstone.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1-12)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인자하신 주님, 환란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참고 순종하신 주님. 주님이 머릿돌 되어 주시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나 대신 사시기 때문입니다.

Has Jesus become the cornerstone at your workplace as well as your home? The merciful Jesus, the Jesus who endured and obeyed to the end through tribulations and persecution. A life that has Jesus as its cornerstone is truly beautiful, because then Jesus lives in me on behalf of me.

셋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KJV 흥정역]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편 118:24)

Third, Jesus is eternal.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Psalm 118:24)

물론 이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구별하다’ 라는 히브리어 ‘아사’ (asah, accomplish) 는 ‘일한다, 만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날 안에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서 일하십니다. 때문에 매일 매일이 주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월화수목금금금’이 아니라 ‘주일주일’ 매일이 주일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매일이 주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매일 매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영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마땅히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팬케이크 뒤집는 것처럼 자주 바뀌는 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기분 내키면 호산나, 수틀리면 대못질 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흉내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봅시다. 선택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따라 갑시다.

Of course, “this day” means the Lord’s Day which celebrate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Hebrew word “asah,” meaning “to discern,” also has meanings “to work” and “to make.”

We rejoice and are glad in a day when Jesus is at work! Jesus is constantly, without change, at work by our side. Therefore, we must live a life in which every single day is the Lord’s Day. Let’s live a life in which all days are the Lord’s Days, not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Friday, and Friday. How can we make every day the Lord’s Day? Must we come to church every day without working at all? Stay in God’s everlasting love. Remember the

resurrected Jesus in every minute and every day. As He is everlasting, our love towards Him must not change. Nonetheless, between the mornings and evenings our minds keep flipping like

pancakes. We are spiritual children who are eager to crucify Jesus as soon as we shout “Hosanna” in excitement. If we really want to change, we must gaze at Jesus in the way infants

gaze at their mothers and fathers. Let’s just follow Jesus Who is good, kind, and everlast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is not what you do; it’s who you become. That’s what you

will take into eternity. (Dallas Willard)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성질을 이제 좀 뽑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걸치고 있던 겹옷도, 정성껏 꺾은 나뭇가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질을 뽑아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펼쳐 드리십시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한 내 성질을 꺼내 드립니다.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잘난 척, 때로는 너무 못난 척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크신 자비로 덮어주세요.’

As I finish my sermon, I'd like us to make a determination. "Lord Jesus, I pray that I will lay down my ego before You." What He really wanted was neither our cloaks nor the palm branches we waved. Let us give up our egos and lay them down on the road on Jesus' path. "Lord, I have been too proud. Sometimes, I bragged a lot, and other times, often, I assumed false humility. Depending on circumstances, I adored You and also resented You. With Your great mercy, please cover me, Lord."

아픈 어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쓴 글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프습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 밑이 다 헐었습니다.

A mother caring a sick baby wrote this: "Now that I'm a mom, I often have tears. I'm beginning to understand a glimpse of what my parents went through. My baby gets sick often lately. He's had fever for two days, coughing, throwing up, with runny nose so bad enough to rub his skin raw.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공공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 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I wish I was sick instead. I can hardly sleep at night trying to take care of my suffering child, but in the morning, instead of feeling exhausted, I find myself busily searching for ways to decongest his nose so that he can breathe better. This makes me ask, "Will this be how God feels as He loves us?" Raising a child, I become more and more understanding of God's mind and I thank Him for that.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18: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alm 118:1)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I bless you that you will have a blessed week, residing in the eternal lovingkindness of our Lord who is the good Shepherd.